맛에 놀라고·분위기에 취하고

군산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 성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원한 바람을 타고 귀가를 맴도는 흥겨운 리듬은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지인들과 나누는 담소는 한 주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기에 충분했다.

경기도에서 왔다는 강모(29·여)씨는 "처음 왔는데 너무 좋다"면서 "군산에 이렇게 수제맥주 관련 산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내년에도 한다면 다시 꼭 오고싶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시작해 18일 마무리된 '제2회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며 글로벌 축제도 거듭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제2회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건배사로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라고 선창을 외치자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군산!!"이라고 외치며 축제는 시작됐다.

개막 퍼포먼스와 함께 분위기가 달아오른 '제2회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은 지난해보다 더 커지고 웅장해진 규모 때문인지 음악과 분위기에 취하기 충분했다.

주변의 함께 온 지인들과는 물론 서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서로서로 가벼운 건배와 인사 속에 행사장 분위기는 이미 한껏 달아 올랐다.

이번 축제는 지역기업 참여 확대로 지역 산업축제로 동반성장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단순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공연 규모도 국내 밴드 13개팀, 미국 2개팀, 일본 1개 팀과 로컬밴드 10개팀(직장인 밴드 3팀, 지역예술단 1팀, 호원대 실용음악부 6팀)이 참여해 인지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음식부스 주문대기 시간 축소 위해 맥주 추출기를 4대에서 8대로, 음식 부스도 18개에서 30개로 증가, 맥주 교환권 구매와 맥주 받는 곳을 분리 운영해 혼잡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 시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30개의 맛집들이 음식부스에 참여해 행사장의 음식 부스 현수막에는 매장명과 위치가 적혀 있었다. 사전에 신청된 메뉴와 가격이 공개돼 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축제장 음식 바가지 요금 행위가 전혀 없었다.

특히, 친환경 생분해 컵을 사용해 환경문제까지 신경썼으며 관람객 동시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500석에서 4,800석으로 늘렸다.

/군산=김판곤 기자

"현장 대응 능력 강화해 피해 최소화"

정헌율 익산시장 "농가·기업 윈윈할 공급체계 구축"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역 기업과 농가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원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1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원재료 공급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농가는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들은 각종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며 "기업과 농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현재 운영 중인 푸드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원료중계공급센터 기능까지 더해 지역 농산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 시장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부재 기간에 시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 중심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장마에 대비해 재해위험지구나 공사 현장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올해 여름은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이번 추경에 누락없이 편성할 것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전 부서는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가고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조성 현장(말도)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군산시의회, '가고싶은 K-관광섬' 조성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에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가고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조성 현장(말도)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고군산군도의 '말도·명도·방축도'는 문화관광부의 '가고싶은 K-관광섬'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해, 총길이 1,278M의 해상인도교와 연계한 캠핑장 및 해안탐방로를 조성, 관광편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관계자들과 함께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에 일부 부족한 부분과 함께 위원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고군산군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서 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매력적인 K-관광섬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섬을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박시설 및 주차장 등 일부 부족한 인프라의 조성을 주문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현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강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을 둘러본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위원장은 "고군산군도는 자연경관과 문화적인 매력을 가진 장소로,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반영해 '가고싶은 K-관광섬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군산이 해양관광 1번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K-바이오 100조원시대 겨냥 그린바이오 '고도화'

익산시, 제1차 그린바이오 전문가 TF세미나 개최… 바이오 선도도시로 도약

익산시가 2030년 K-바이오 100조원 시대를 겨냥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생산규모를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발표에 힘입어 시는 종자, 동물용의약품, 식품 등 그린바이오 분야 선점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19일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익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방향 설정 및 토대 구축을 위한 제1차 그린바이오 전문가 TF 세미나(이하 TF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세미나에는 교수, 연구위원, 공무원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익산 그린바이오 산업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과 산업의 바이오 소재 요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중장기 발전방안이 제시되며 바이오경제 사업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익산시가 2030년 K-바이오 100조원 시대를 겨냥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바이오기술 대전환 시기에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 그린바이오 조례 개정 방향'과 '익산 그린바이오 전문가 포럼' 출범을 위한 분과구성 방향 설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TF 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익산 그린바이오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정기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학술적 연구를 병행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군산 고향사랑 실천 방문

용인특례시 전라북도민회가 고향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군산을 방문했다.

이번 군산 방문은 지난 5월 군산 출신 고석곤 회장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원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응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도민회원들 중 군산 출향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고석곤 회장이 대표로 있는 ㈜에이펙코리아에서는 연 2회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업체 물품을 구입하기로 약정했다.

고석곤 회장은 "몸은 멀리 있지만 고향을 생각하면 항상 따뜻한 정과 편안함을 느낀다."라며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군산업체를 이용하고 군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2050탄소중립 실현 '공직자' 앞장

익산시가 2050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공직자 교육으로 앞장서고 있다.

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우선 공직자의 이해와 역량을 갖추고 선제적 행정력을 강화해 나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직원 환경교육'이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혁신적인 마인드로 다양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익산=이재춘 기자